조선일보 - 1930. 01. 22/ 4면/ 2단

個人主義와 社會主義 理想 (四)

「個我의 價値를 辨明함」

韓稚振

五, 個我 個我間의 交通

우리가 發見한 獨異的 個我라는 것은 出入門이 업서 外界의 影響을 주지도 밧지도 안는 實在로서 엇더케 그러한 個我들이 意思 가튼 것을 互相 交通하고 잇는가 하는 것이 이 單子的 個我主義의 根本的 問題이다. 엇더케 金君의 思想과 感情을 李君이 肯定 혹은 否定할 수 잇는가? 個人間의 思想的 交通은 오직 우리의 有名한 發明物인 言語로 可能하게 되엿다. 言語의 單位는 名辭어니 名辭는 다시 觀念 혹은 心象을 具體化한 것이다. 槪 혹은 勿論 判斷의 結果이다. 例하면 시람이란 槪念을 엇으랴 할 것 가트면 사람은 動物界에 잇서서 엇더한 地位에 잇스며 또는 그 意義와 情性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判斷을 이미 한 後에야 사람이란 槪念을 作成할 수 잇는 것이다. 이러케 속마음으로 사람이란 槪念을 어든 다음에는 名辭를 通하야 外部로 發表되는 것이다. 이 名辭의 連絡은 命題가 된다. 그런즉 言語란 것은 思想, 感情의 發表手段인 것이 分明하다. 言語는 流動的인 思想과 感情을 捕捉하고 固定化하야 一定한 意味를 作定한다. 槪念 作用을 名辭라는 □型으로 捺印하야 一定한 意思를 作成한다. 이 言語化한 思想과 感情은 이미 固定된 것이 안이오 客觀的이다. 이 客觀的이란 말은 個人的 思想, 感情을 누구나 그 言語를 배호면 共分할 수 잇게 되엿다는 意味이다. 다시 말하면 固體化하는 性質을 가저 言語라는 媒介物로써 獨異的으로 流靈하는 個人의 思想, 感情을 部分으로 固體化(名辭化)하야 共通의 所有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리하야 言語는 人間의 意思를 交通케 하는 唯一한 媒介物이 되엿다.

그러나 言語化한 意思, 感情은 流動的이 안이오 固體化한 것인 故로 流動的 個人의 意思, 感情을 完全히 代表하엿다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는 言語의 誤用으로 人間에 意思衝突이 發生하는 것을 보아 說明할 수 잇다. 이런 故로 意思는 個人的과 言語的(主觀的과 客觀的)으로 兩分하야 볼 수 잇스니, 個人

的 意思는 眞正하고 比較的 完全한 곳이지만은 言語的 意思는 便宜的이오 不完全하다. 實로 우리는 言語에 拘束되여 우리의 內部的 經驗을 他人에게 誤解하게 하는 째가 만타.

言語는 一種 契約과 가트니 누구나 이 契約을 採用하고 □從하면 그 契約의 內容을 알 수 잇는 것이다. 言語란 契約은 一般의 差別點보다 共通點을 代表하엿기 째문에 一種 言語란 使用함으로 말미암아 人人間의 內情을 多少 交通할 수 잇고 이 交通이 圓滿히 發達된즉 民族性 혹은 階級意識이 發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意識的 團結은 便利를 싸라서 形成된 習慣에서 不過하다. 이런 故로 民族語意識이니 階級的 意識이니 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先天的 즉 先驗的이라 하는 것은 妄想이다. 이러한 意識들은 同一한 言語를 使用하면서 同一한 利害□□ 下에 便宜를 싸라 形成된 習慣의 □□라 한다.

以上에 個人과 個人間의 交通狀態를 探知하야 個我는 眞正으로 外界의 影響을 밧지도 안코 주지도 안는 獨異的 自我의 努力인 것을 다시 力說한다. 사람들은 各各 이러한 自我를 各 自己 안에서 發見함을 싸라 이 人類 歷史는 다시 元年으로부터 始作하게 될 것이다. (끗)